**가와구치코 호수 - 박물관과 갤러리**

가장 깊은 곳이 14.5m인 가와구치코 호수는 야마나카코 호수와 비슷하게 수심이 얕은 호수로, 야마나카코 호수와 마찬가지로 수상 레크리에이션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와구치는 한자로 ‘河口’라 쓰는데 이름처럼 가와구치코 호수에는 6개 이상의 계류가 흘러듭니다. 가와구치코 호수의 북동쪽 호안에는 미술관과 박물관, 화랑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모두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후지 5호 호수에 놓인 유일한 다리인 가와구치코 호수 대교는 북쪽의 우부야가사키 곶과 남쪽의 가와구치코 허브관 주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펼쳐져 있는 가와구치코 호수에서는 북쪽 해안을 따라 다수의 지점에서 후지산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부야가사키 곶은 수세기 동안 호수면이 잔잔할 때 후지산의 모습이 아름답게 반사되어 보이는 거꾸로 후지산(사카사후지)의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우부야가사키 곶에는 사진가 오카다 고요, 하이쿠 작가 마쓰오 바쇼, 그리고 작가 나카무라 세이코 등 이 지역의 이름을 높인 예술가들의 기념비가 다수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와 민간 전승**

지역 일대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864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 이후, 후지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와구치아사마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사는 가와구치코 호수 북동쪽 호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는데, 가와구치코 호수 남쪽에 당시의 분화로 생긴 화성암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화산 활동에 의한 용암류를 피하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신사는 후지 5호 유일의 섬이자 가와구치코 호수의 거의 중심에 위치한 우노시마 섬에 있습니다. 이 신사는 인근 신사의 민간 전승에도 가끔 등장하는 음악과 물과 애정의 여신, 벤자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항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사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